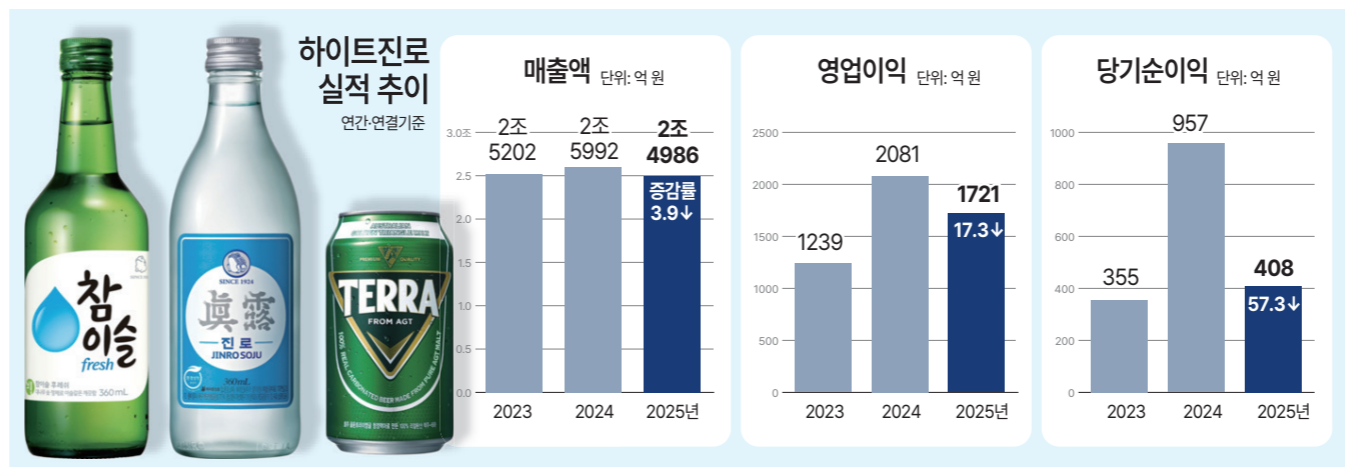


실적 부진 늪 빠진 주류업계... 하이트진로도 '비틀'

작년 3분기 매출 2.2% 감소 이어 4분기도 2.9%↓
소주 선방했지만 맥주 부진... 회식 줄어 수요 '뚝'
원감 절감 노력도 무위... 해외시장서 돌파구 모색

국내 주류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하이트진로도 '실적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축 경영과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과 원가 상승이 겹치며 수익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증권가는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6084억 원,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8%, 영업이익은 36.78% 감소한 수준이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1조92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

었고, 영업이익도 1816억 원으로 2.8% 감소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544억 원으로 22.5% 급감했다. 매출 감소 속에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 감소 폭이 확대됐다. 사업 부문별로는 소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맥주 부진이 두드러졌다. 4분기 소주 매출은 4023억 원으로 1.8%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영업이익은 22.6% 줄어든 255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맥주 매출은 1621억 원으로 9.4% 감소했고,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회식 문화 축소 등으로 주류 소비가 구조적으로 감소한 데다, 3분기 추석 가수영향으로 4분기 출고량 증가도 제한적이었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판매량 감소로 고정비 희석 효과가 약화되면서 공장 가동률 하락과 감가상각비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했다. 하이트진로는

분기당 370억 원 안팎, 연간 약 1500억 원 규모의 감가상각비를 부담하고 있다. 비용 절감 노력도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광고선전비는 13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1109억 원으로 54.89% 급감했다. 그러나 맥아·호프 등 원재료가

격 상승과 환율 부담으로 매출원가율이 56%를 넘어서는 등 원가 압박이 지속됐다. 연말에는 매출 방어를 위해 판촉비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수익성은 추가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가는 단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맥주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가

운데, 발포주 '밀라이트' 판매 증가가 레귤러 맥주 감소를 상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돌파구로는 해외 시장 확대가 거론된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에 건설 중인 생산공장의 연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을 거점으로 소주 수출 물량을 늘리고,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비와 관세 부담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일본 등 기존 주력 수출국에서도 '진로' 브랜드를 앞세워 한인 시장을 넘어 현지 소비자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류 소비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회복하려면 해외 매출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베트남 공장 가동 이후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중장기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온라인 플랫폼 조직 문화 평점 1위는 기아

CEO스코어, 조직 문화 평점 분석 결과

직원 수 1만 명 미만 민간기업 1위는 경동도시가스
금융권 대기업·공기업·에너지 기업 등 평점 상위

기아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온라인 기업 평판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조직 문화 평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 대기업과 공기업이 높은 평점을 기록했고 민간기업 중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28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 평판 플랫폼에 공개된 2025년 12월 말 기준 조직 문화 평점을 분석한 결과 직원 수 1만 명 이상 민간기업 중 기아가 평균 3.85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조직 문화 항목 5가지(승진 기회, 워라밸, 복지, 급여, 사내 문화·경연전) 중 4개 항목에서 상위 3위 내에 들었다. 워라밸과 경연전은 1위, 승진 급여와 복지 급여는 3위였다. 기아에 이어 평점이 높은 직원 수 1만 명

이상 기업은 △국민은행 △기아 △농협은행(3.75) 등 3개 시중은행이 나란히 뒤를 이었다. 또한 △현대모비스(3.55) △삼성SDS-삼성전기-삼성전자(3.5) △현대자동차(3.45) △LG유플러스(3.4)가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직원 수 1만 명 이상 민간기업 중 기업 평판 점수가 낮은 곳은 △삼성중공업(2.55) △아성다이소(2.6) △삼구아이앤씨-포스코(2.66) △LG디스플레이(2.75) 등이다. 직원 수 1만 명 미만 민간기업 중에서는 경동도시가스가 4.45점으로 평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4.35)과 네이버클라우드(4.3)도 23위에 올랐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네이버클라우드는 승진 기회와 사내 문화 항목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GS파워(4.3) △

직원 수 1만명 이상 기업평점 상위 10개사

순위	기업명	기업평점
1위	기아	3.85
공동 2위	국민은행	3.75
공동 2위	기업은행	3.75
공동 2위	농협은행	3.75
5위	현대모비스	3.55
공동 6위	삼성SDS	3.5
공동 6위	삼성전기	3.5
공동 6위	삼성전자	3.5
9위	현대자동차	3.45
10위	LG유플러스	3.4

*[기업평점] 500대 기업 중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평판 플랫폼 2곳(잡플래닛·블라인드)의 기업 평점을 합쳐 2로 나눈 값(점) * [조사기준] 2025년 12월 말

직원 수 1만명 미만 기업평점 상위 10개사

순위	기업명	기업평점
1위	경동도시가스	4.45
2위	네이버파이낸셜	4.35
3위	네이버클라우드	4.3
4위	GS파워	4.3
5위	두나무	4.25
공동 6위	KB금융	4.1
공동 6위	동국씨엠	4.1
공동 6위	서울도시가스	4.1
공동 6위	파주에너지서비스	4.1
공동 6위	한국증권금융	4.1

[자료] CEO스코어

두나무(4.25) △KB금융-동국씨엠-서울도시가스-파주에너지서비스-한국증권금융(4.1)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직원 수 1만 명 미만 기업 중 평점 상위 10위권 중 4곳이 에너지 기업이었다. 반대로 직원 수 1만 명 미만 민간기업 중 평점이 가장 낮은 기업은 △백제약품(1.7) △대보유통(1.85) △서희건설(1.9) △오케이저축은행(2.0) △서진오토모티브(2.1) △클로벨(2.05) 등이다. 업종별 평균 조직문화 평점으로는 공기

업이 3.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주사(3.64) △에너지(3.54) △은행(3.49)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반면에 △유통(2.89) △생활용품(2.91) △자동차-부품(2.94)은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았다. 업종별 평균 조직문화 항목별 분석에서도 공기업의 우위가 두드러졌다. 5개 항목 중 워라밸, 복지·급여, 사내 문화 3개 항목에서 공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승진 기회와 경연전 평점은 지주사가 가장 높았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제네시스 '엑스 스킵피오 콘셉트' 세계 최초 공개
제네시스는 2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톱알할리 사막에서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엄 행사를 개최하고 엑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카 엑스 스킵피오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엑스 스킵피오 콘셉트는 오프로드 레저를 즐기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콘셉트 모델로 기존 오프로드 차량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췄다. 스킵피오는 전장에서 영감을 받아 극한의 조건에서 우아함을 잃지 않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겠다는 콘셉트 모델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외관은 전갈의 아치형 꼬리와 같은 유려한 곡선이 차체를 따라 흐르며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투라인 헤드램프와 함께 균형 대칭미를 강조했다. 블랙과 블루 컬러가 적용돼 햇빛 아래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전갈의 본질인 몸체를 모티

비빔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가.

한영민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